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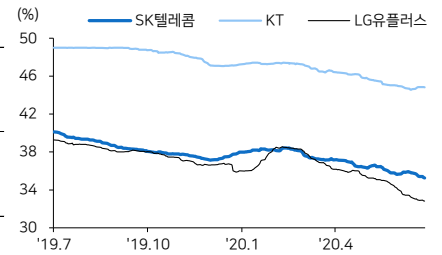


2020.7.27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0.0	3.1	14.4	-2.0	15.9	15.9	0.9	0.9	2.0	2.0
통신업종	-4.4	-1.8	-4.4	-12.8	10.5	10.5	0.6	0.6	4.6	4.6
SK텔레콤	-4.1	-0.2	-0.7	-12.2	11.8	7.9	0.7	0.7	4.8	4.9
KT	-2.7	-0.2	2.2	-9.4	8.8	7.5	0.4	0.4	4.8	4.9
LG유플러스	-7.8	-8.5	-11.4	-17.5	9.4	8.3	0.7	0.6	3.6	3.8
AT&T	-2.2	1.7	-0.5	-23.2	9.3	9.1	1.1	1.1	7.0	7.0
Verizon	1.0	6.9	-1.9	-5.7	12.0	11.6	3.5	3.1	4.4	4.4
T-Mobile	-0.4	-0.3	15.8	28.9	64.4	36.1	2.1	2.1	0.0	0.0
NTT Docomo	-1.3	1.1	-10.4	-6.0	16.1	16.0	1.8	1.8	4.1	4.2
KDDI	-0.7	3.0	5.4	1.8	12.2	11.7	1.7	1.6	3.4	3.7
Softbank	-0.1	17.3	47.7	36.0	N/A	11.2	1.6	1.8	0.7	0.6
China Mobile	-1.2	0.2	-12.4	-23.2	9.2	8.9	0.9	0.8	6.2	6.4
China Unicom	-4.4	0.2	-12.9	-36.3	9.7	8.5	0.4	0.4	4.1	4.9
China Telecom	0.4	4.6	-12.6	-27.5	8.4	7.7	0.5	0.4	5.3	5.6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SKT 35.0% (-0.4%p WoW, -0.7%p MoM)
KT 44.8% (-0.1%p WoW, -0.2%p MoM)
LG+ 32.8% (-0.1%p WoW, -1.5%p MoM)
통신3사 외국인지분율 하락세 지속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7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4.4%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유럽 내 화웨이 장비 퇴출 움직임 지속.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반사 수혜 예상 AT&T와 Verizon 2Q20 실적 발표,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속, 향후 투자에 대한 방향성 발표 국내 기관은 SK텔레콤, LG유플러, KT 순매도, 외국인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31일 Nokia 2Q20 실적발표 예정
Nokia는 다소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기 규모에 시장의 관심 집중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사 선정이 금주로 연기됐으나, 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될 가능성 유력 Verizon이 2H20 공격적인 5G 투자 계획을 밝힌만큼 삼성전자 밸류체인 업체들에 대한 관심 지속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9	20	21	22	23 AT&T 2Q20 실적발표 미국 CBRS 주파수 경매 시작	24 Verizon 2Q20 실적발표	25
26	27	28	29	30	31 Nokia 2Q20 실적발표	1

3 주간 뉴스

▶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사 발표 다음주로 연기... "막판 추가 검토중" (전자신문)

- 현대 HCN은 23일이나 24일에 발표 예정이었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음 주로 연기
-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인수가격도 더 높게 제시한 KT스카이라이프 선정 예상
- 133만명(3.95%)을 보유한 현대HCN이 KT(群)에 더해질 경우 KT 점유율 35.47%로 상승
- ⇒ 정확한 인수 가격에 주목. 향후 딜라이브와 CMB의 매각가격을 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
- ⇒ KT스카이라이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 방통위의 심사도 속도 낼 전망

▶ SK텔레콤, HPE와 5G MEC 수출 (IT조선)

- SK텔레콤, HPE와 MEC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력 체결, 동남아 이통사들에게 우선 공급 방침
- 5G MEC는 무선 데이터 전송 지름길을 통해 초저지연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는 5G 핵심 기술
- 추후 SK텔레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미, 유럽 소재 통신사에 수출을 타진할 계획
- ⇒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5G MEC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
- ⇒ 5G SA 및 5G MEC 기술 도입과 함께 수익성 높은 5G B2B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전망

▶ 과기부 2022년까지 1200억 투자...5G 융합서비스 발굴 박차 (디지털타임스)

- 과기부는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을 본격화 하기로 결정
- 2022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15개 이상의 5G 융합서비스 발굴 목표
- 이번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통신 사업자 등) 선정 공모는 7월 22일 부터 진행
- ⇒ 정부의 주도를 바탕으로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을 통해 글로벌 5G 산업 선도 전망
- ⇒ 국내 5G 환경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투자 속에 국내 통신장비주들의 수혜가 이어질 전망

▶ 영국 이어 프랑스도 사실상 화웨이 퇴출... "2028년 이후 갱신 거부" (IT조선)

- 프랑스 통신당국은 화웨이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거부할 방침 발표
- 자국 내 경쟁사(8년) 대비 낮은 면허 승인 기간(3년) 적용을 통해 불리한 시장경쟁을 유도
- 프랑스 제2통신사 알티스와 제 3의 통신사 부이그텔레콤 기존 화웨이 장비 교체 불가피
- ⇒ 영국 정부와는 다른 단호한 소통방식으로 인해 화웨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
- ⇒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로 인해 화웨이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기회

▶ 미 국무부 "화웨이에서 벗어나라" 국내 통신사 압박 (IT조선)

-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 같은 회사들에게 장비공급업체를 바꿀 것을 촉구
- 이와 반대로 SKT와 KT는 5G 통신망 구축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만 사용하고 있다며 언급
-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도 미국이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는 주지 않을 것으로 발표
- ⇒ LG 유플러스 향후 전략에 주목, LG유플러스가 현재 구축한 기지국 중 화웨이의 비중은 95%
- ⇒ 화웨이를 포기할 경우 28GHz 대역대 미국 중심으로 상용화한 경험이 있는 에릭슨 수혜 전망

▶ 중국 5G 가입자, 사상 첫 1억 명 돌파 (ZD Net Korea)

- 중국 5G 이용자 수가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유니콤을 제외하고도 1억명 돌파
- 중국 5G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상용화, 올해 1월 673만 명 대비 가파른 성장세
- 가격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중국 통신사의 5G 요금제와 5G 스마트폰 기기가 가파른 성장세 견인
- ⇒ 5G 네트워크 보급, 5G 요금제 인하, 저가형 5G 스마트폰 보급으로 5G성장은 가속화될 전망
- ⇒ 화웨이는 중국 5G 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전세계에 퍼진 '화웨이 리스크'에 대응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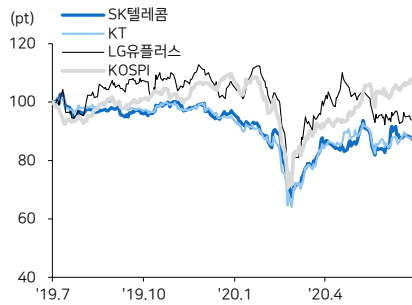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한국	SK텔레콤	208,000	14.0	15.5	16.2	1.0	1.2	1.2	1.8	4.5	4.7	4.9	4.7	6.1	8.9
	KT	23,650	5.1	20.5	21.1	1.0	1.1	0.6	0.7	4.2	4.3	2.6	2.6	5.0	5.8
	LG유플러스	11,300	4.1	11.4	11.9	0.7	0.8	0.4	0.5	2.7	2.8	3.4	3.2	7.3	7.9
미국	AT&T	29.6	210.7	169.7	172.0	34.0	35.6	22.3	22.4	55.4	56.5	6.9	6.7	11.5	11.6
	Verizon	56.9	235.2	127.6	132.0	29.3	31.0	18.9	20.2	46.5	47.9	7.3	7.1	30.3	27.8
	T-Mobile	105	130.1	66.6	71.1	6.8	8.2	2.2	3.2	20.9	21.0	7.6	7.5	6.1	6.4
일본	NTT Docomo	2,945.0	90.0	43.4	42.9	8.0	8.0	5.5	5.5	13.6	13.5	6.5	6.5	11.2	11.3
	KDDI	3,322	72.4	48.6	49.3	9.7	9.8	5.9	6.1	15.7	16.5	5.5	5.3	14.9	14.4
	Softbank	6,492	128.4	57.1	61.3	-12.6	7.6	-7.1	10.3	5.6	16.8	43.3	14.6	-11.3	16.7
중국	China Mobile	53.5	141.3	108.0	112.8	16.3	16.7	15.5	16.2	41.7	43.5	2.2	2.1	9.7	9.7
	China Unicom	4.3	17.1	42.4	44.0	1.7	2.0	1.8	2.0	13.6	14.1	1.5	1.4	3.8	4.4
	China Telecom	2.3	23.9	55.3	57.6	4.1	4.3	3.0	3.2	17.1	17.5	2.2	2.2	5.6	5.8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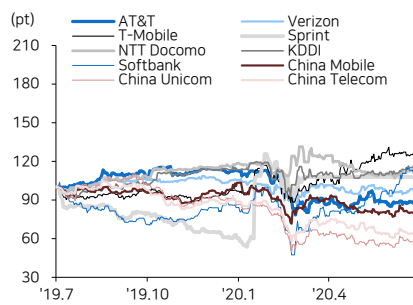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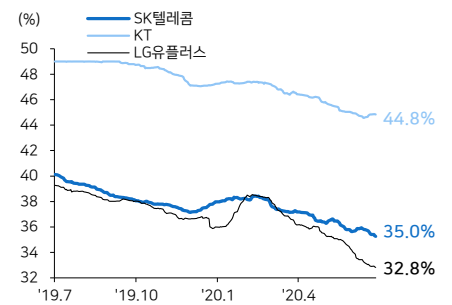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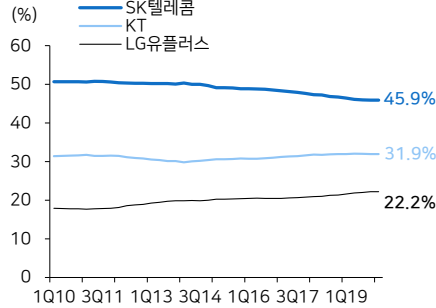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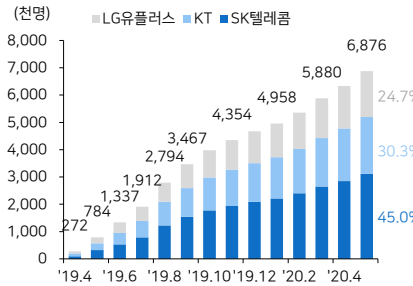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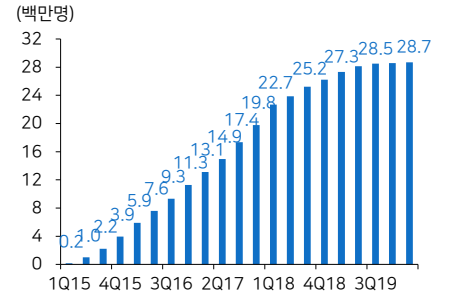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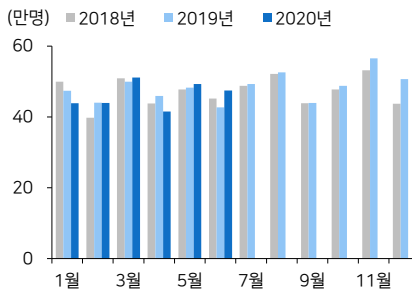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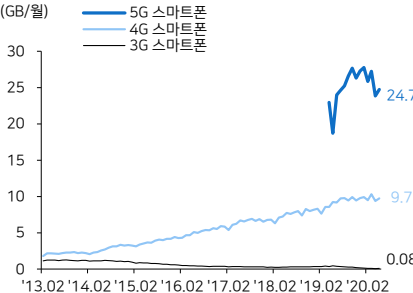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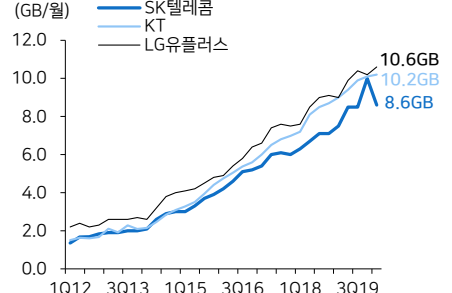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를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